

영광군수, 박성국 프로골퍼 초청·격려

KPGA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서 3차 연장전 끝에 생애 첫 우승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13일 KPGA 코리아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데뷔 11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박성국 프로골퍼와 가족, 종목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격려했다.

박성국 프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경남 김해 정산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코리아투어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최종라운드에서 3차 연장전 끝에 천금같은 파세이브에 성공해 감격의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우승상금 2억 원을 거머쥐었다.

2007년 프로에 데뷔한 박성국(30·영광읍 무령리)은 그해 에이스저축은행 몽베르오픈에서 생애 첫 승의 기회를 잡았으나 연장전에서 아쉽게 우승을 내준 뒤 무



김준성 영광군수(왼쪽)가 KPGA 코리아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박성국 선수(오른쪽)를 격려했다.

관의 한을 끊어내지 못했다.

김준성 군수는 격려자리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주관한 권위 있는 대회에서 우승한 박성국 프로는 6만 군민의 위상을 높여준 영광의 자람이다”며 “그 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며 더욱더 멋진 승부를 펼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

목포시립교향악단, 오늘 밤 정기연주회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정나라의 객원지휘로 제 11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으로 시작한다. 베토벤이 괴테의 비극 ‘에그몬트’에 감격해 작곡한, 동명 비극을 주제로 하는 극음악의 서곡이다. 총 11개의 베토벤의 서곡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명곡이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정하나의 협연으로 브루흐 ‘바이올린협주곡 제1번’이

연주된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실내악단 ‘슈투트가르트 챔버오케스트라’에 제1바이올린 주자로 입단해 큰 주목을 받았던 정하나는 지난 1996년 도미하기 전까지 송행석, 차인홍, 김용운 교수를 사사했다. 이후 미국 월넛힐 예술고등학교 및 뉴잉글랜드 음악원,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스러국립음대와 뮌헨국립음대, 슈투트가르트국립음대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영·호남 상생... 오늘부터 ‘거창 사과축제’

롯데백화점 광주점, 4년째 지속

사과로 맺어진 ‘영·호남 화합’을 위한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경남 거창군의 상생 협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경남 거창군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점 지하 1층 특설 행사장에서 ‘거창 사과축제’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광주점 최초로 영남지역 지자체인 거창군과 ‘거창군 특산물전 대박자’를 진행한 이래 지자체와 백화점 간 대표적인 ‘영·호남 화합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점 양도원 식품 Floor장은 “광주점에서 진행되는 ‘거창 사과축제’가 보여주기식 1회성 행사가 아니라 4년째 지속



2016년도 롯데백화점 광주점 정문 광장에서 거창사과데이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며 “영·호남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 영호남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産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 할 듯

광주시, 현대차와 완성차공장 추진 산은 “투자협약 체결때 협조할 것”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이 지난 8월 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직접 만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당시 광주시는 산업은행 측에 ‘광주형 일자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현대차와 완성차 공장 설립에 합의할 경우 산업은행이 신설법인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투자협약이 체결되면 구체적으로 협의해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들어갈 총 투자 규모 7천억원 가운데 자기자본을 2800억원으로 설



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섭(가운데)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진행된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정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지분의 21%(590억원)을, 현대차가 19%(530억원)를 각각 분담하고 나머지 60%(1680억원)를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자기자본 이외 나머지 4200억원은 금융권 등의 차입을 통해 채운다.

산업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자본금의 15% 이내에서 참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 최대 42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합작법인 설립 방식으로 완성차 공장을 세워 기존 완성차 공장 생산직 연봉의 절반 수준의 일자리 1만여개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현대차와 협약이 완료되면 투자할 수 있는냐는 원론적인 의견을 나눴다”며 “산업은행은 현대차와 협약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장흥군, 바이오산단에 김 가공공장 짓는다

(주)스마트FPC와 투자협약 맺어 1만4000㎡ 부지에 총 135억 투자

장흥군은 14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협약식’에서 (주)스마트FPC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스마트FPC(대표 임송재)는 수도권 소재 어업법인으로 수산물 가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스마트FPC는 올해부터 바이오산단에 1만4000㎡ 부지에 1차 70억원, 2차 65억 원을 투자해 김, 매생이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시설이 완공되면 7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그린에너지 등 4개 기업이 11월 중 분양계약을 할 예정이고, 선포식(주)



14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협약식’에서 (주)스마트FPC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등 대규모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산단 분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바이오산단 입주기업은 3.3㎡당 4만 9천원(분양가의 15%)의 균입지보조금과 9만 8천원(분양가의 30%) 도입지보

조금이 지급되며,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이자보전금이 연 4%로 2천만원까지 2년간 지원되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지훈 기자 jh2255@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목포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후 1~2일 안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간의 접촉으로도 감염되는 급성 위장관감염증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집단 생활을 하는 유·소아의 감염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수칙으로는 ▲올바른 손씻기(의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끓인 물 마시기 ▲굴 등 수산물물은 되도록 익혀 먹기 ▲채소, 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등이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1325명 명단 공개

전남도, 체납규모 795억원

전라남도는 14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3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 규모는 795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체납자가운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멸기회를 부여 후 확정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각 시군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의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도와 시군 누리집에 연계해 공개하므로

써 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2016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기존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67명이 늘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자 224명(97억 원), 기존 공개자는 1천101명(698억 원)으로 개인은 904명(382억 원), 법인은 421명(413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A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봉태영 기자 bcy2020@

오늘의 날씨

11월 15일(木)
음력: 10월 8일

수도권 날씨
4~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11 | 해질 / 17:22

연천 0/14, 동두천 1/15, 가평 0/13, 파주 0/15, 서울 4/15, 양평 2/14, 인천 7/14, 수원 4/15, 용인 4/15, 평택 2/15, 백령도 7/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